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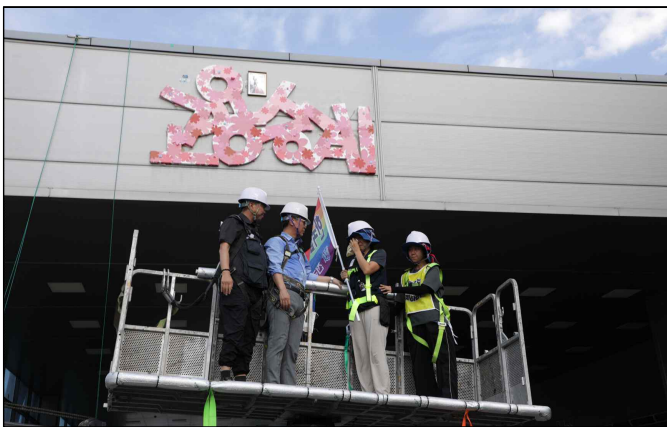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투쟁, 땅에서 마무리 짓는다

‘600일’ 구미 옵티칼지회 고공농성 해제 … 정부·민주당 “노사교섭 만들 것”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가 내려왔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공장 옥상에 오른 지 600일만. 정부와 민주당은 옵티칼 해고 문제 해결과 외투기업 먹튀 규제 입법을 선언했다.

박정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29일 오후 땅을 밟았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1년 8개월간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후 3시45분경 박정혜 한국옵티칼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이지영 지회 사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다. 공장 건물 지붕에서 두 해 여름을 보낸 박 수석부지회장은 연신 눈물을 쏟았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닛토덴코 자본을 향해 노사 교섭 즉각 개시와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에는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승리해서 내려오길 바랐지만, 우리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닛토덴코 자본이 잘못했는데 노동자가 고통받아야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고공에 오르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한국옵티칼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해야”

박 수석부지회장은 연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금까지 투쟁하고, 오늘 제 두 다리로 무사히 내려온 것은 모두 함께해 준 분들 덕분이다. 건강 챙기고 더 열심히 투쟁해 꼭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외국투자기업 문제를 꼬집으며 “한국을 무시한 외투기업이 노동자를 600일이나 하늘 감옥에 가뒀다. 노동자들에게는 ‘내란’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반드시 쟁취하겠다. 금속노조는 박정혜와 한국옵티칼지회 조합원들 결의를 받아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고공농성은 이제 땅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연대의 힘을 발판 삼아 승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며 “더 치열하게 더 넓게 싸워 정부와 국회, 닛토덴코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옵티칼지회 고공농성 해제 소식에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민병덕(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의원,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등이 한국옵티칼 공장을 찾았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고공농성 종료 결정에 앞서 노동부와 민주당은 한국옵티칼지회에 노사 대화 자리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민주당, 한국옵티칼 노사교섭 추진과 외투 먹튀 방지법 등 약속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나라가 없었다. 정부를 대신해 이들과 함께해 주신 노동조합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옵티칼 문제 조속 해결에 노동부 장관 권한을 아끼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셨다”라며 “빨리 교섭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투 먹튀 방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를 배신하고 팽개치는 외국인투자기업 ‘먹튀’를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정부, 대통령실, 민주당은 노동계와 함께 고민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농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한국옵티칼지회 사무실로 이동해 금속노조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와 민주당은 ▲‘정부·민주당·노동조합’ 옵티칼 대책팀 구성 ▲노사 교섭 추진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마련 등을 재차 약속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 한국 자회사다. 닛토덴코 자본은 2004년 경북 구미에 한국옵티칼 공장을 지었다. 토지 무상 임대와 법인세 감면 등 한국 정부로부터 갖은 세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22년 공장에 불이 나자, 닛토덴코 사측은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희망퇴직과 법인 청산을 밀어붙였다. 한국옵티칼 생산 물량을 다른 자회사인 경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모두 가져갔다.

한국옵티칼 사측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전원 해고했다. 현재 금속노조 옵티칼지회 조합원 7명이 남아 니토옵티칼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정혜, 소현숙 지회 조합원 2명이 사측의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철거 시도를 막고자 지난해 1월 8일 공장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소현숙 조합원은 건강 악화로 지난 4월 27일 내려왔다. 그동안 사측은 금속노조 교섭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